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 1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됩니다
- 2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해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 3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 4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 1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 2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 3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 4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 후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렘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 담당

4/23(화)	4/24(수)	4/25(목)	4/26(금)	4/27(토)	4/29(월)
박재동 안수집사	우경섭 안수집사	정명수1 안수집사	김창동 안수집사	박명규 안수집사	김영식2 안수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황효립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함 께
찬 송 292장 다 함 께
기 도 박재동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사도행전 20:21~23 인 도 자
찬 양 새롭게 하소서 새벽찬양대
설 교 · 『사도행전(51) - 바울의 정신, 복음정신(II)』 · 이상학 목사
: “성령에 매인 자”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함 께
찬 송 325장 다 함 께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묵상 >

21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22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요 일	본 문	제 목
4월 24일(수)	행 20:24-27	사도행전 (52) - 바울의 정신, 복음정신 (III) : 복음, 곧 하나님 나라 신앙
4월 26일(금)	행 20:28-30	사도행전 (53) - 바울의 정신, 복음정신 (IV) :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4년 4월 23일(화)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매 순간 성령 안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성령께서 새문안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교회 위에 성령의 권능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일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러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를 대한민국 중심부에 우뚝 세우셨으니,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에 크게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담임목사님을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있게 선포하게 하옵시고, 모든 교역자 위에 큰 은혜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세계 가운데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그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진리를 떠나 왜곡되고 타락해 가는 세상의 문화를 고쳐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성령께서 새롭게 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주께로 돌이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독재 아래서 고통받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